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 갈등 소송전

지분 30% 보유 한양,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소송키로
대표 사업자측 "소송 환영…조속한 법적 판단 사업 정상화 기대"
경실련 "사업자에만 책임 전가 광주시에 실망…특정감사 실시해야"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미숙한 행정을 반복하는 사이 사업자 내부갈등이 깊어지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지역 시민단체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 측에만 전가하고 있는 광주시의 행정행위를 비난하고, 특정감사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중앙공원 1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이 30%, 우빈산업 등 3개 사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내부 갈등으로 '한양 대 비한양' 구도를 형성한 끝에 지난해말 법인대표가 비한양측 인사로 교체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양을 제외한 다수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으로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 원을 우선 조달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에만 짓고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양은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빼앗고, 이번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등도 광주시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우빈산업 등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 보증서 제출, 보증기간 미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광주시는 우빈산업 등을 특수목적법인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모든 절차는 주주총회 등을 열어 법적 요건에 맞게 진행해 왔으며, 한양도 3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변경 등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한양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도 환영한다. 하루빨리 법적인 판단을 받고 사업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광주시 공무원과 함께 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추정 분양가 상담 등 관련 업무를 봤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광주시와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면서 "오히려 대표성이 없는 일반주주에 불과한 한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는 광주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광주시의 입장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광주시는 협약이행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 관련 의혹을 특정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한 광주시의 행정을 보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지 알 수 있으며, 사업추진 목표나 방향 그리고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번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日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2021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긴급의안으로 상정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100억 들여 광주 평동산단에 수영장 갖춘 체육관 짓는다

5월 착공 내년 4월 완공

광주시는 "19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옥동2근린공원 내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평동산단은 도심에서 떨어진 제조업 공장이 집중된 단지로 근로자와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사업 부지는 평동산단 중심부로 접근이 용이하고 공용주차장이 인접한 곳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샤워실·탈의실, 2층에는 농구·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선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부지인 빛그린 산단에도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5월 착공해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내년까지 산업단지 2곳에 개방형 체육관이 건립되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법 제정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운영중이며, 5·18 관련자 및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추진해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 촉구는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령이며, 후유 증상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치유·재활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센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치유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담양 한옥·진도 진돗개 '지역 맞춤형 관광사업' 공모 신청

문체부 개소당 국비 60억 지원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에 담양군, 진도군 등 2곳을 추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주도형 관광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8개 시·도 중 5개 사업을 선정해 개소당 4년간 국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3월까지 11개 시군의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2곳을 선정, 관광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담양군의 '담(潭)스테이, 여행자 도시에 품격을 더하다'와 진도군의 '보물같은 시간을 선물하는 진돗개 왕국'을 문체부에 신청했다.

'담(潭)스테이, 여행자 도시에 품격을 더하다'는 침체한 한옥 민박의 고품격화를 통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프리미엄 한옥스테이 백(100)방으로 등 4개 핵심사업 ▲담(潭)패스 카드 시범사업 운영 등 4개 연계협력사업 ▲공동세탁서비스지원시설 조성 등 4개 관리운영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물같은 시간을 선물하는 진돗개 왕국'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 ▲진돗개 캐릭터 개발 및 콘텐츠 구축(작전명 109) 등 3개 핵심사업 ▲경관도로 연계(109도로) 등 5개 연계협력사업 ▲'킹덤 오브 진도'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등 4개 관리운영사업으로 구성됐다. 관광명소와 관광개발 사업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 특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것"이라며 "또한 주민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관광개발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수산식품 중국서 인기몰이…80만 달러 MOU 체결

중국 푸젠성 샤먼과 랴오닝성 다롄에서 전남도가 2021년 제1차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80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 및 15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은 전남도, 전남 중국 상해사무소,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 등 3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23개 중소 기업의 대중국 수출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샤먼 16개사, 다롄 61개사 바이어를 매칭했다.

전남지역 수출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 샤먼 54건, 다롄 104건 등 총 158건의 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80만 달러 상당의 MOU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별로 좋은영농조합법인 50만 달러, (주)호성 영농조합법인이 30만 달러다. 건강식품 및 뷰티 분야에서도 각각 18만 달러, 1만5000달러 상당의 상담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기업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